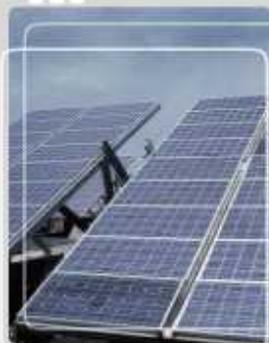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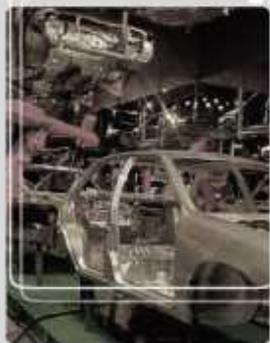


#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Putin 3기' 호의 출격 1주년, 국내·외 평가/ 3

---

- |   |                 |
|---|-----------------|
| 3 | 1. 러시아 정치·경제 동향 |
| 5 | 2. 국내 평가        |
| 6 | 3. 국외 평가        |

#### II. Putin 정부 정책 진단/ 8

---

- |    |                   |
|----|-------------------|
| 8  | 1. 주요 경제 부처 정책 방향 |
| 10 | 2. 국내 경제 정책 진단    |
| 21 | 3. 대외 경제 정책 진단    |

#### III. 한-러 관계 현황 및 전망/ 33

---

- |    |                 |
|----|-----------------|
| 33 | 1. 한-러 교역 동향    |
| 38 | 2. 한-러 핵심 이슈    |
| 48 | 3. 한-러 경제·통상 전망 |

#### IV. 주요 시사점/ 49

---

- |    |                 |
|----|-----------------|
| 49 | 1.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

## 요 약

### □ 푸틴 3기, 러시아의 정치·경제 동향

- 정권 교체 충격 없이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추진
  - 푸틴은 지난 2000~2008년 동안 2기에 걸쳐 대통령으로 집권 후, 3번 이상 연임할 수없는 러시아헌법에 따라 물러났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해 재집권함
  - 고위공직자 외국계좌 및 주식보유 금지 법안을 통과, 비리 연류 협의관련 국방부 장관 해임 등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

### □ Putin 3기, 국내·외 경제 정책 진단

-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력 중
  -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법정에 설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2012년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44%가 '2011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답변함.
-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투자 부진으로 러시아 경제 위기
  - WTO가입 및 진행 중인 FTA 협상 등 국제 수준의 통상 규범의 러시아 시장 적용으로 시장 개방 등 기대감 향상
  - 반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및 투자 부진으로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러시아가 추진하는 CIS 경제 블록화 일부 극빈국의 추가 가입 예정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추가 참여 가능
  - 반면, CIS 경제 블록화에 힘을 실어줄 우크라이나 가입은 불투명한 상황

### □ Putin 3기, 한-러 관계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양국 교역량 지속적으로 확대
  - 교역량은 2010년부터 확대되어 2011년 최초로 교역액 200억 달러 돌파
  -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러시아는 주력상품 수출처이자 원자재 수입처
- 러시아 경제·안보의 이유로 추진 중인 극동개발 주력
  - 美 셰일가스 개발 위협, 러시아 가스 수출 새로운 판로로 동북아 부상
  -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는 남-북-러 협력사업(가스관, 송전망, 철도연결)
  - 우리나라가 대러 통상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경협(의료, 조선, 건설)
- 한-러 교역 관계 확대 전망
  - 세계 주요 기관들의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선전은 고무적임
  - WTO 가입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 8월 이후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 기대

### □ 우리 기업 대응 전략

- WTO 수혜가 예상되는 IT, 화학제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필요
- 극동지역개발(인프라, SOC 건설 프로젝트 및 의료, IT융합) 프로젝트 참여
- 고비용, 관료주위, 부패 등의 단시일 개선이 어려운바, 장기적 투자진출 계획
-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대러 통상 인프라 확충

# I.

## ‘Putin 3기’ 호의 출격 1주년, 국내·외 평가

### 1. 러시아 정치·경제동향

#### □ 푸틴 3기, 러시아의 정치 동향: 크지 않지만 변화의 의지

-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권의 큰 변화 없이 국정 운영
  - 푸틴은 지난 2000~2008년 동안 2기에 걸쳐 대통령으로 집권 후,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는 러시아헌법에 따라 물러났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해 재집권함
  - 지난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기(2008-2012)에 푸틴은 국무총리로서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통치해, 정권 교체에 따른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지 평가의 중론임
- 푸틴 3기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캠페인이 새로 진행되고 있음
  - 비리 연류 혐의로 세르듀코프 국방부 장관 해임(2012.11.2), 前농업부 장관 Ms. 엘레나 스크린닉 경찰 조사(2013.3.13)
- 한편, 고위 공직자의 외국계좌 및 주식보유 금지 법안이 통과 (2013.4.24)
  - ‘고위 공직자들이 외국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던 푸틴의 의지 재확인

#### □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 동향: 경기 하락, 푸틴의 새로운 시험대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투자부진 등으로 2013년 러시아 상반기 경제 상태는 침체 기조임
  - 우랄산 원유가 \$116/배럴(2013.2.14)에서 \$96.27(2013.4.19)로 하락해 에너지자원이 총 수출에서 70%를 차지하는 러시아 경제에 위기로 작용 중
- 2월 러시아 경제는 전년 동월대비 0.1% 성장에 그쳐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기록

<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2월	1~2월	2월	1~2월
실질GDP 성장률	5.6	-7.8	4.3	4.3	3.4	4.9	4.0	2.9	2.1	5.6	5.4	0.1	0.9
산업생산 성장률	2.1	-9.3	8.2	4.7	2.6	4.0	2.3	2.5	1.7	6.5	4.9	△2.1	△1.5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9.8	-16.2	6.0	8.3	6.7	16.6	10.2	7.3	1.3	16.3	16.4	0.3	0.6
소매거래량 증가율	13.0	-4.9	6.3	7.0	5.9	7.6	7.0	4.8	4.5	7.9	7.7	2.5	3.0

\* 자료출처: 경제개발부, 통계청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3.6%에서 2.4%로 하향 조정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 민간소비 감소, 13년 1분기 투자 및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 조정의 배경임
- 푸틴 3기 초기의 러시아 경제 하강 기조는 푸틴에게 새로운 시험대로 작용 중
  - 푸틴 1,2기(2000-2008년)의 경우, 높은 원유가를 바탕으로 러시아 경제는 고성장을 기록하여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의 경기 하강 기조가 더욱 악화될 경우 푸틴에 대한 지지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美·中 셰일가스 개발: 러시아경제의 위협요인

- 미국·중국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은 수출비중에서 석유·가스 비중이 70.2%(11)에 달하는 러시아 경제에 큰 위협요인임
  -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09년 이후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1위 생산국이 됨
  - 중국은 셰일가스 부존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배경 하에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은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 가격인하 요구, 유럽의 가스 수요감소, 중국과의 가스 공급계약 체결지연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부가스프로그램인 차얀단 가스전 개발, 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 2. 국내 평가

### □ 변화에 대한 불신과 경제 개선의 기대가 공존했던 1년

- 권위 있는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Levada 센터가 ‘2018년 푸틴의 4선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13.3.22-25) 실시<sup>1)</sup>
  - 응답 결과, 응답자의 22%가 ‘푸틴이 대통령이 다시 되어야한다고 답한 반면, 55%는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고 답변
  - 동 설문결과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지만,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라고 지적
  - 한편, Levada 센터는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고 답변한 55%의 응답자들이 특정 인물 또는 정당을 언급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 반면, 4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담 진행, 이 대담에 56만 통의 전화, 9만 9천 개의 문자메세지와 6만 3천개의 편지가 도착해, 3기 푸틴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임
  - 본 대담은 4시간 47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미리 접수된 러시아 국민들의 질문 중 86개의 질문에 답변함.
  -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일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책 수행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함.
- 종합해보면,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정부의 정책 실효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푸틴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지못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이끄는 강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피로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1년이었다고 볼 수 있음.

1) 러시아 130개 시(市)와 45개 지방에서 동 설문조사 실시

### 3. 국외 평가

#### □ 주요 서방국가(경제기구)의 평가

- (미국) 푸틴 3기,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와 관습이 개혁의 걸림돌
  -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푸틴 3기 1년을 평가하며, 러시아의 정치·경제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푸틴의 공약(5-6%)보다 낮은 2.4%로 보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며 공격적인 매매활동을 펼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지적
  - 러시아의 취약점으로 자국 기관의 투자 부족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높고 이에 높은 해외 자본 의존도로 외부효과에 민감하다고 분석
  - 모건스탠리는 12개 항목 중 4개 분야만 우수(Good) 평가를, 6개 항목은 평균(average), 나머지 2개 항목은 저조(bad)로 평가2)
- (유럽) 오랜 관료주의와 관행으로 투자유치 효과 미미
  - EIU(European Intelligence Unit)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WTO가입(2012.8월)은 중국과 달리 투자유치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대외무역 역시 수입관세율이 2018-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예정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3)수입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국과 같이 수출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가
  -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일부 법규, 규제는 국제화가 예상되고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분야 등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2016년까지 개선 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오랜 관료주의와 불합리한 관행들로 인해 기업환경이 선진국수준까지는 단시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

2) 모건스탠리는 12개 항목 중 4개 분야인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금융시장 부문에 우수 평가를 내림, (무역정책과 금융시장의 우수성은 2012년 8월 WTO가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균 항목인 6개 분야는 인프라, 석유산업에 대한 세수, 민영화, 투자환경, 기술혁신, 정부행정임. 저조한 평가로 받는 2개 분야는 연금개혁정책과 관세정책임  
 3) 석유, 가스, 목재 및 기타 광물에 대한 수입 관세

- 또한, 최근 키프로스<sup>4)</sup>의 금융위기에 따른 EU의 은행거래 규제가 유럽 국가들의 반 푸틴 정서(시리아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현지 분석이 있음

## □ CIS 주요국의 평가

-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치·경제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 등 비판적인 분위기
  -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EU 가입이라는 우크라이나의 국정 과제에 반하는 CIS 경제 블록 가입을 우크라이나에 압력으로 가함
- **(카자흐스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직후 시행된<sup>5)</sup>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 대다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임
  - 양국정부간의 관계도 돈독한 상황이며 카자흐스탄 기업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푸틴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공고화를 위해 4.14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러시아의 대외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아제르바이잔)** 적절한 선에서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편향 외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해 적절한 선에서 협력 관계 유지 중이나 아제르바이잔 영내의 러시아 레이더 기지를 폐쇄하는 등 협력 관계를 점차 줄이고 있음
- **(조지아)** 친(親) 서방 노선을 취하며 러시아와 대립 중임
  -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3기 정부에 대해 “현 푸틴 정권은 러시아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언급

4) 키프로스는 러시아의 주요 해외투자국 중 하나로 투자된 금액의 대부분은 (탈세를 위해) 키프로스를 거쳐 다시 러시아에 재투자됨

5) 카자흐스탄의 정치 해법 연구소(ИИП)가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에서의 여론조사 실시 (2012. 6월)

## II. Putin 정부 정책 진단

### 1. 주요 경제 부처 정책 방향

#### 가. 경제개발부



경제개발부 장관  
Mr. Andrey Belousov

러시아 2020 사회·경제 개발 전략과 같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현대화 추진에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됨.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정부의 시장 개입)가 필요하다고 믿는 인물로 평가

- 연금 개혁(연금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 국영기업 민영화는 재정 수입 확충 측면보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지난 12월부터 러시아 경제 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sup>6)</sup>
- (부처 정책 방향) : 사회, 경제 정책과 대응방안, 전망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로, 장관인 Belousov의 주도로 기업환경 개선, 경제발전 및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를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공공 및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구축 노력 역시 추진 중

6) 러시아 경기 침체에 주요 부처들은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우려해 동결 중임(최근 현지 이슈중 하나임)

## 나. 재무부



재무부 장관  
Mr. Anton Siluyanov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론자로 평가.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소득세를 늘려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반대. 세수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 전임 장관인 Mr. Kudrin에 반해 **Siluyanov** 장관은 정부 각 부처 내 이견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외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현지 평가임
-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대한 각 부처의 요구에 동조하는 입장임
- (부처 정책 방향) : 재정 확충을 위해 '2013-2015년 세금 부과 정책'을 통해 200여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개정함(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법인세, 교통세)
- 2013.3월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에너지세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이며, 루블화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확대 노력 중에 있음

## 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장관  
Mr. Denis Manturov

각 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산업별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며, 특히 군수 관련 국영기업 회사에 일한 경력이 있어 군수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평가가 있음. 한편, 산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구축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주장

- (부처 정책 방향) : 산업통상부는 산업 및 국방산업 발전, 항공기 제조, 기술규정, 과학, 해외 및 국내 무역 관련한 국가 정책 수립을 담당
- 2012년 WTO가입이후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수입 차량에 부과하는 폐차세를 입안, 시행 중
- 최근에는 산림 산업 발전을 위해 130억 달러 재정 지원 안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 코자하는 정책을 진행 중

## 2. 국내 경제 정책 진단

### ◆ 국내 경제 정책 개괄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투자환경 개선):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 분야 비중 축소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 중
- (세계 개편 및 R&D 강화): 자국 산업 현대화를 위해 세계를 개편하고 R&D 강화 추진 중
- (지역경제 개발): 편차가 심한 러시아의 지역경제를 균등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예정인 북서와 경제·안보의 이슈를 가진 극동 지역 개발 적극 진행 중

### 가. 투자환경 개선

- (배경)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민간분야의 경제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 중
- (진행사항)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칙령을 통해 러시아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세계은행 발표)를 2015년 50위, 2018년까지 20위로 올릴 것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 명령

7) 러시아 기업환경지수 순위 (2012년 120위, 2013년 112위)

- 이를 위해 '6개 분야의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진척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2.7-2013.3월)	총건	이행 건	진행 중	미이행 건
전체	120	33	46	41
- 건설인허가 단순화	22	2	13	7
- 세관시스템 개선	18	7	4	7
- 전력이용 접근성 강화	28	8	11	9
- 부동산 등록	13	0	12	1
- 수출·진출 용이성제고	22	16	0	6
- 반독점 규제강화 및 경쟁강화	17	0	6	11

\*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2013.4.15 보고서)

- 위 6개 로드맵 외에 8개 분야의 개선 로드맵(안)이 추가로 마련된 상태로 주 내용은 중·소기업의 인프라 이용 접근성 확대, 국제적 금융센터 건립 등

- 푸틴 집권 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음

- 투자 옴버즈만 제도(비즈니스 고충처리제도)

- 옴버즈만<sup>8)</sup>은 외국인 또는 내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법정에 설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관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정부 단체 및 대표자에 대한 평가 실시

- 수요자중심 전력 공급 제도 개편 노력

- 30일 한도 내에 150KW까지 전력 연결 시 비용을 550루블(약 \$18)로 고정 및 750KW의 대규모 전력 수요 건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를 제공

- 외국 투자 기업가<sup>9)</sup>에게 5년 기한의 비자발급

□ (평가) 기업 환경 개선에 장애 요소는 현존하지만 작은 변화 체감

-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의 Demotrios Marnati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투자의 장애라고 진단

- 보고서는 러시아에 혼란스럽고 모순된 투자 규제가 존재하여, 2008년 반부패 위원회

8) 2012.6월, 푸틴은 경제단체 비즈니스 러시아(Delovaya Rossiya)의 수장인 Mr. Boris Titov를 투자 옴버즈만으로 임명

9) 러시아에 투자하는 기업 중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추천하는 외국 대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

개설, 2011년 반부패 법안 통과 등의 노력에도, 투자환경개선의 진전이 작은 것으로 (little progress) 평가

- 또한, 동 보고서는 이해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와 소액 주식투자자 보호 조치 미흡 역시 투자의 장애로 진단
- 한편, 2013년 3월 러시아 기업가연맹과 미국의 홍보전문기관(public relations agency)인 Fleishman-Hillard가 주러 외국기업대상으로 '2012년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설문 실시
- 설문 결과, 응답자 중 44%가 '2011년 대비 개선되었다'(이중 34%는 약간 개선/minor improvement), 48%는 '변화 없음', 8%는 '악화'로 답변함

## 나. 공기업 민영화

- (배경) 국영기업 민영화는 과도한 국가자산을 줄이고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화, 선진기술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추진
- (진행사항) 2012.6월 재발표된 민영화 계획을 보면, Rosneft, VTB, Aeroflot 등의 12개의 거대 국영기업을 2016년까지 100% 민영화 예정
  - 러시아 철도공사, Transneft 등은 2016년까지 부분 민영화 예정
  - 2012.10월 발표된 2013년의 민영화 계획 이행시 2,600-2,700억 루블에 달하는 재정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
- (평가) 2012.6월 발표된 민영화 계획에서 민영화 대상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나 이를 통해 실물경제에 국가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에서는 평가
  - 2013-2015년 기간 중 민영화 추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 위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2012.6월 러 정부가 승인한 민영화 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없다는 평가임

**< 2013년 주요 대기업의 민영화 추진 일정 >**

회사명	업종	정부 소유주식	지분 매각률
Transneft	석유, 송유관	78.1%	3.1%-1주(2013년까지)
Rosneft	석유	75.1%	25%-1주(2015년까지) 전량매각(2017년까지)
VTB	은행	75.5%	25.1%-1주 매각(2012-13년간) 전량매각(2017년까지)
Sberbank	은행	57.58%	7.6%매각 (2012-13년간)
Sovcomflot	조선	100%	50%-1주 매각 (2013-13년간, IPO형식 예상)
Russian Railways	철도	100%	25%주식-1주 매각(2013년부터)
Aeroflot	항공사	51.175%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Sheremetyevo	공항	100%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RUS Hydro	수력발전	58%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FSK	송배전	79.11%	4.11% 매각 (2012-13년간)
Rusnano	기술개발, 투자	100%	10% 매각 (2012-13년간)
Alrosa	다이아몬드	50.9%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Rosselkhozbank	은행	100%	25%-1주(2015년까지)
Zarubezhneft	에너지 개발	100%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기 제작	82.95%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 자료원: 모스크바타임즈(2012.1.26)

**다. 세제 개편**

(배경) 산업현대화 정책에 부합되는 세제환경 조성과 푸틴의 대통령 선거 공약 등이 반영되어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요내용) 천연자원 채취 기업과 사치품에 대한 세율 인상, 제조업 지원 등임

< 주요 조세 변경사항 >

조지사항	시행일	비고
가스 채굴세 변화 (2013-2015년간)	2012.5월~ 시행	<b>천연자원 채취 기업에 세금 부과액 인상</b> -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가스프롬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했으나 독립(개인) 가스회사에게는 세금을 낮춤 - 이러한 가스 채굴세 변화로 2013년에만 360억 루블의 조세수입이 추가 확보 예상. 2014년 1343억 루블 2015년 2703억 루블 예상
고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세 인상	2014.5월~ 시행예정	<b>410hp이상 차량과 150hp이상 오토바이에 교통세 적용</b> - 이로 인해 20-30억 루블의 조세수입 확대예상
고급 부동산에 대한 자산세 인상	2014.3월~ 시행예정	<b>대형·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액 인상</b> - 통상 재산세는 평가액의 0.05%이나, 고급주택의 경우 누진세를 적용, 1억 루블까지 부과가능 - 이로 인해 3억 루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택소유자(단일 또는 전체 보유주택의 합)의 납세액은 6배 상승
회사 자산세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2013.1.1~ 시행	<b>대체용 신규장비에 세금 면제</b> - 구형 장비 대체를 위해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에게 세금 면제 (회사자산세는 지방세에 해당)
중·소기업의 세금체제 간소화	2013.1.1~ 시행	<b>세금체제를 다변화를 통한 간소화</b> - 중·소기업의 귀속소득에 대한 납부방식을 해당기업이 2가지 (종전 방식/ 단순화된 방식) 중 택일 하도록
담배,주류,휘발유에 대한 내국소비세 인상	2013.1.1~ 시행	구체적 내국소비세율은 2014년에 재조정 예정

라. R&D 강화 및 혁신

□ (배경) 경제현대화의 방법으로 R&D 강화 및 혁신 추진

- 2000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했던 러시아는 2008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년 -7.9%의 성장률을 기록
- 이러한 자원의존경제 구조의 한계에 직면한 러시아는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다변화, 첨단기술 육성, 혁신 등에 대한 내부 요구가 증대하게 됨

- 2009년 메드베데프 前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을 선언하고 주요 방법으로 ① 5대 핵심산업 육성화<sup>10)</sup> ② 연구개발(첨단 기술 육성) 등을 제시
- 연구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스콜코보 혁신센터' 조성을 추진<sup>11)</sup>

스콜코보 단지 내 우랄(Ural) 비즈니스센터



**스콜코보 혁신 센터**

- 배경: 우수과학자 및 기술상용화기업 유치,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연구개발 종합단지
- 분야: 에너지, IT, 원자력, 바이오·의료, 우주
- 위 치: 모스크바 인접 2km지점
- 수행기간: 5-7년 소요 예상 (2011년 착공)
- 거주 예상인원: 30,000명 이상
- 정부예산: 2015년까지 약 40억달러 투입계획

- (스콜코보 혁신센터 진행사항) 2013.3월 기준 710개 기업 입주신청 허가 완료, 비즈니스센터(Ural Biz Center) 및 주변 아파트 건설 등이 완료된 상태임

< 입주허가 기업 분야별 구분 >

분야	기업 수
IT	228개
우주·통신	67개
바이오	167개
에너지효율화	187개
핵연료	61개

\* 자료원: 스콜코보 센터

- 스콜코보 혁신센터내 'The Skolkovo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kolkovo Tech)'를 설립(2012년)했고, 2013년 pilot course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임
- Skolkovo Tech를 통해 인재 육성 및 산학 협력을 장려할 계획

10) 5대 핵심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정보기술)

11)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스콜코보 건설 계획 발표(2010.3):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추진

- 스콜코보 혁신센터 입주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음

세금 혜택	-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면제 - 연구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상환 등
보조금 지원	- 프로젝트의 경쟁력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마케팅 컨설턴트	- 제품 마케팅 및 포지셔닝에 대한 자문 - 회사 발전 전략 및 벤처 펀드 유치 자문
사무실 등 시설 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 전화 등의 대여 - 가격: m <sup>2</sup> 당 350(USD)/연

- 스콜코보 혁신 센터는 알리안츠, Alloy Venture, Intel Capital 등 49개 벤처캐피털과 MOU를 맺은 상태로, 2013년 3월 현재 스콜코보 입주 기업에게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650백만(USD)이며, 77개 기업이 벤처캐피털의 후원을 받고 있음
- 2013년 3월 현재, 노키아, 시스코, GE, 마이크로소프트 등 29개 기업과 혁신센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혁신센터에 지적, 재정적 자원 및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센터 주요 파트너사 >

SAP AG, HC Composite, IBM, Nokia Corporation, Intel, Nokia Siemens Networks, Alstom, OSK, Siemens, RU.COM, Microsoft, Ericsson, Schneider Electric, EADS, Cisco, Dow, Renova, Johnson & Johnson, GE, TATA, JSFC Sistema, Boeing, EMC, LUKOIL, Honeywell, Rosatom, ISS-Reshetnev Company, TNK\_BP, KamAZ 등

\* 자료원: 모스크바무역관

- (기타 동향)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련, 실시 중
  - 러 벤처사(Russia Venture Company)<sup>12)</sup>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와 지원 중
  -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은행(MSP BANK)<sup>13)</sup>에 의한 재정지원도 실시 중

12) 2006년 러시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보안, 바이어, 의료, 나노, 재료, IT, 환경경영, 교통, 우주 항공시스템, 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을 지원 중

13) 상업은행,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지원. 지원 범위는 제조업, 하이테크 분야 기업에 한정

마.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선

(1) 북서지역

□ (배경) 북서지구,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허브로 전환 중

- G20 정상회의(13.9월) 및 국제경제포럼(13.6월) 등 국제회의 개최 예정
-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수입 비중이 높고, 산업생산증가율이 13.8%로 러시아 평균 4.7%의 3배에 달함

□ (진행사항) 전략산업 및 북극항로 개발에 주력·추진하고 있음

- 자동차, ICT, 제약, 조선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
  - 글로벌 IT R&D센터 49개 소재, 러시아 SW기업 본사의 60%가 소재하고 있음
- 북극항로 개발 논의가 진행 중임



**북극항로 노선도**

최근 북극해빙과 해적문제 등으로 북극항로가 인도양 항로의 대체 항로로 부각됨

- 부산-로테르담간 북극항로 이용시 인도항로 대비 운항거리 (7,000km), 운항일수(약10일) 단축으로 연료비 등 선박운항비용 절감

- 최근 북극해 항로 선박운항 사례14)

시기	운항선사(선박)	주요 특징
2009년 7-9월	독일 벨루가쉬핑 선박2척(화물선)	· 울산항-베링해-북극해-로테르담 운항
2010년 8월	Baltica(유조선_10만톤)	· 유럽에서 아시아로 석유제품 운송
2010년 9월	노르웨이 MV Nordic Barents호(벌크선)	· 노르웨이에서 중국 연운항으로 수송
2010년	러시아 선박(가스운반선)	· 무르만스크에서 중국 닝보항으로 운송
현재	유럽 주요 선사	· 북극해 항로 활용 방안 모색

(2) 극동·시베리아지역

□ (배경) 러시아 정부는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착수<sup>15)</sup>

- 안보적: 극동지역 인구 수(686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억 명의 중국 동북3성 인구와 중국 인력의 지속적 유입에 대한 위기감
- 경제적: 미·중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유수출처 다변화(동북아국가로의 확대), 지역경제 침체, 지하자원 및 물류산업 개발 필요성 등

<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자원 매장량 >

구 분	매 장 량
원 유	759억 배럴(러시아 전체의 16%)
천연가스	47조 6천만 m <sup>3</sup> (러시아 전체의 21%)
석탄	1,570억톤

\* 자료원: BP / Korea-Russia Far East Forum 발표자료 재인용

□ (진행사항) 전체적인 개발 정책 방향은 “2025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전략”(2009.12월 발표)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2025 극동·바이칼지역 경제, 사회 발전 계획

- (1단계; - 2015년) :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산업, 농업분야의 발전 등
- (2단계; 2016-2020) :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기존 인프라 장벽제거, 중요 교통 인프라(도로,철도,해상,항공) 연결 사업 완료, 원자재 가공기술 수출 증대 등
- (3단계; 2021-2025) :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통한 혁신경제로의 전환, 대형 교통,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완료, 연구 개발 분야의 선진화 등

○ 지역개발펀드 설립: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은 투자 유치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인 지역 개발 펀드 설립(2011.11월)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5억에서 150억 루블로 증액

1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책임연구원의 ‘러시아 극동의 교통물류체계’ 중 인용

15) 2007년 APEC 회담 유치, 지역자치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동·바이칼 지역 발전프로그램 추진

- 극동개발부 신설(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 Far East): (2012년 5월)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지역개발부로 국가프로그램 및 연방프로그램 수행
  -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독립적인 연방 부처를 설립하는 것은 러시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푸틴 대통령의 극동지역 개발 의지가 확인됨
- 거대예산 투입: 동 프로그램의 시행과 APEC 회담 준비 등에 예산으로 1조 370억 루블(약 38조 달러)을 편성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 개최 관련 주요 프로젝트

-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고속도로 전용 다리 건설(325억루블,3.1km)
- 골드혼 다리 건설(161억루블,2.1km)
- 블라디보스톡-세단카 고속도로 건설(139억루블,5.3km)
- 노비-세단카 고속도로 건설(289억루블;46.5km)
- 블라디보스톡 신공항 터미널 건설(40억루블,6만sm)
- 블라디보스톡 공항 증설 및 보수(40억루블 추정)
- 루스키섬에 극동대학 본관 및 기숙사 등 건설(700억루블)
- 대형 호텔 건설(75억루블 추정) 등 50여 개의 SOC 시설이 건설 완료됨

\* 자료원: [www.apec.primorsky.ru](http://www.apec.primorsky.ru)

- 투자활성화 조치: 극동지역 투자 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광역단체, 지방단체), 법인소득세 등의 세금 면제
- 인구유인 조치: 개인소득세 면제, 무이자주택담보대출, 자동차구매대출 등 세금 혜택 고려 중
- 물류기능극대화 계획: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물류 기능 극대화를 위해 스토치니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경제구역을 추진 중
- 프로그램추진 현황: 현시점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2013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프로그램 관련 주요 프로젝트

- 블라디보스톡-나호트카-보스토치니 항구 고속도로 건설('13년 완공 목표, /168.46km)
- 우수리스크 지역 고속도로 건설('13년 완공/113km)
- 라스돌노예-하산 고속도로 건설('13년 완공/217km)
- 사할린-하바롭스크 가스라인 인근 도시에 가스공급 체계구축('13년 완공)

\* 자료원: [www.faip.vpk.ru](http://www.faip.vpk.ru), [www.finam.ru](http://www.finam.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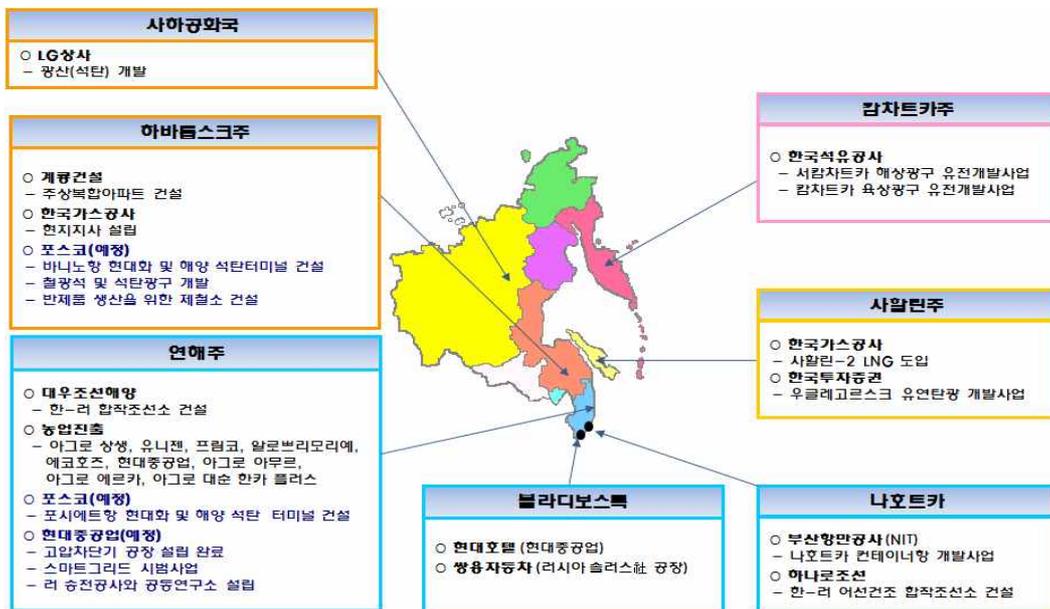
□ 경쟁국의 극동지역 진출동향

- (중국) 전략적 동맹국가로서 송유관 지선 건설 참여 등 활발한 에너지 협력 중
  - 2007년부터 연해주에 224ha 규모의 러-중 경제통상 지구 조성 추진 중<sup>16)</sup>
  - 동북 3성과 시베리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200개 프로젝트 마련 중
- (일본)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 러시아 기업과 CKD 조립생산 구축과 유통 체인점 진출 등 극동지역으로의 투자에 관심 증가 추세
  - 마쓰다, 도요타사 러시아 Sollers사의 블라디보스톡 공장에서 CKD생산(2011)
  - 미츠비시의 극동지역 유통체인점 진출 검토

□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진출동향

- (자원분야협력) 1997년 현대호텔 건설을 시작으로 농업분야 및 사할린 LNG 수입 등의 자원분야 협력이 대부분이었음
- (투자진출확대) 물류·건설과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 진출도 확대 중임

<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현황 >



\*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16) '13. 10월까지 54ha 건설 완공 예정으로 신발, 의류 등 중국기업 20개사 입주 완료

### 3. 대외 경제 정책 진단

#### ◆ 대외 경제 정책 개괄

- **(WTO 가입):** 가입 당시 세계 7위의 경제규모(GDP 2조 \$2,230억)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G20 국가 중 마지막으로 WTO에 가입('11.12.15.)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며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잇따르고 있음
- **(CIS 경제 블록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삼국관세동맹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는 단일경제공동체(CES)을 거쳐, 회원국들 간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상호 교역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 통화, 합의된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 수행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2015년까지 추진 중
- **(BRICS 협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BRICS로부터의 투자유치에 관심이 높으며, 지정학적으로 관련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BRICS 협의체 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 중
- **(FTA 협상 추진):** CIS 회원국 및 세르비아와의 FTA를 완료하였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등과의 FTA를 논의·진행 중에 있음

#### 가. WTO 가입

##### □ WTO 가입 이후, 러 경제 변화: 통상변화 아직 없어

- WTA(World Trade Atlas)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수출은 6.9% 감소
  - 하반기(7-12월)수출은 WTO가입('12.8월)에도 불구하고 -32.4% 감소
  - 수입은 연간 기준 4.2%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수입은 17.9% 상승

< 2012년 러시아의 수출입 >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금액 (백만\$)	352,536.4	210,387.7	142,148.7	290,405.9	133,285.5	157,120.4
증감율	-6.9%	6.1%	-21.2%	4.2%	-0.7%	8.8%

\* 자료원: WTA(World Trade Atlas)

- 동 수출입 변화 내용을 보면, WTO 가입이후 러시아의 수출은 감소, 수입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 이보다는 2012년 하반기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유가하락과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 2012년 하반기까지 이어진 러시아 민간 소비 확대에 따른 수입에 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 즉, 2012년 러시아의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는 WTO 가입과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에 따르면, WTO가입에 따른 대외무역 변화를 언급하기에는 빠르다는 의견으로, 12,000개 품목의 관세가 낮춰지는 2013.8.22일 이후(가입 1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WTO 가입 이후, 러 경제 전망: 현재와 같은 성장세

- EIU의 러시아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을 볼 때, 2014년까지는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임
- GDP 성장률은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를 넘나들 것으로 보이며, 내수성장률이나 상품/서비스 수출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상품/서비스 수입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러 국내 제조업 기반이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데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까지 러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 >

구 분 (단위 : %)	2012	2013	2014
실질GDP 성장률(단위 : %)	3.4	2.8	3.5
산업생산성장률 (Industrial production growth)(단위 : %)	2.6	3.5	3.6
실업률(단위 : %)	5.7	6.1	5.8
연평균 인플레이션(단위 : %)	5.1	6.3	5.8
민간소비지출 (Private consumption)(단위 : %)	6.8	4.6	4.6
정부지출 (Government consumption)(단위 : %)	0.0	2.0	2.0
투자예산총액 (Gross fixed investment)(단위 : %)	6.0	6.2	6.5
상품수출 (FOB 기준, US\$ 10억)	530.6	538.0	561.5
상품수입 (FOB 기준, US\$ 10억)	335.3	385.4	433.0
상품/서비스 수출 (Exports of goods & services)(단위 : %)	1.4	4.4	5.1
상품/서비스 수입 (Imports of goods & services)(단위 : %)	9.5	12.6	9.4
연말기준 대외부채 (US\$ 10억)	532.8	559.3	597.5
연평균 환율 (US\$ 1 대비) 루블화	30.84	30.87	31.11

\* 자료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www.eiu.com)

\* 2012년도 추정치, 2013/2014년도 전망치

- 소비자물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소 낮게 잡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도에는 5~6%대, 2014년도에는 4~5%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EIU 전망치는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임

□ WTO 가입 이후, 자국 산업 보호 조치 강화

(1) 수입차에 대한 폐차세 신설

- 수입 완성차량에 폐차세 적용중(2012.9.1)

**폐차세란(Utilization Fee)란?**

- 명목상으로는 자국내 차량 수 증가에 따라 확대될 폐차 처리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겠다는 환경세 성격의 세금이나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으로 낮아지는 수입차량 관세율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임
- 차종별(승용차, 버스, 트럭)로 책정된 기본부과 세금요율과 연식 등에 따라 책정
  - 승용차 신차(1,600cc) 폐차세액: 약 \$865

\* 첨부1: 폐차세(Utilization Fee) 부과 세금 요율

-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폐차처리 관련 의무 준수 이행을 요구하나, 행정적 수준에 머물러 현지 생산 업체에게 끼치는 부담은 미미

**현지생산업체 제출 서류**

- 폐차 책임 업체로 등록
- Industrial Assembly 수준의 국산화 증명 서류
- 생산 차량 폐차처리 보증서
- 지역별(각 주 및 50만명 이상 도시) 폐차 수거 시설 설립증명서 등

(2) 건설중장비에 대한 폐차세 도입 추진 중

- (배경) WTO가입이후 자국 산업 보호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대한 폐차세를 도입한데 이어 농업 및 산림기계에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2012.9)
  - 동 법안에는 건설중장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러 수출에 있어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중요 품목 중 하나임<sup>17)</sup>
- (진행상황) 천연자원 및 생태 관리 위원회가 주무 위원회로 선정되어 검토 중에 있음  
현재 WTO 회원국의 반발을 우려, 담보 상태임

17) 외국 건설중장비 업체의 경우, 현지 생산 체제를 기 구축하였거나 2013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경우 폐차세 영향 없음

- (향후전망) 러시아 정부, WTO회원국의 반발을 감안, 현재 관망중이나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더 우세함
-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Mr. Denis Manturov**는 “러시아는 폐차세를 취소할 계획이 없으며 차량 이외에 다른 제품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언급

<참고 - 외국 건설중장비 제조사 현지진출 현황>



(3) 대외무역구제제도 활용 빈도 증가

- WTO가입 전후, 철강, 농기계, 섬유 등에 반덤핑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강화
  - 2011년, LCV에 대한 반덤핑 조사 1건 뿐이었으나 WTO 가입 전후(12.7-12)로 반덤핑 판정 3건, 반덤핑 조사 2건, 세이프가드 조사 4건에 착수
  - 2013.4월에는 우크라이나산 철강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
  - 한편, 이 중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인 합성섬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최근 러시아정부의 대외무역 구제제도 활용>

유 형	일 자 (조사완료일)	대상국	품 목	HS Code
반덤핑 조사	2011.11.16 (13.5.15)	독일,이태리,폴란드,터키	LCV (경상용차)	8704.21, 8704.21
세이프가드 조사	2012.7.6 (2013.7.5)	전체국가	곡물 수확기	8433.51, 8433.90
반덤핑 조사	2012.8.30 (N.A)	인도	흑연전극	-
세이프가드 조사	2012.9.3 (13.6.3)	전세계	도자기재질 주방용품	6911.10
반덤핑 재조사	2012.9.18 (13.6.17)	중국	볼 베어링	8482.10 등
세이프가드 재조사	2012.9.28 (13.6.28)	전체국가	카라멜	1704.90,1806.90
세이프가드 조사	2012.10.1 (13.7.1)	전체국가	합성섬유	5407, 5408 등
반덤핑 조사	2013.4.16 (14.1.6)	우크라이나	철강 파이프	7304.24, 7304.29, 7305, 7306
반덤핑 판정	2012.7.1	중국	칼라강판	7210,7212,7225
반덤핑 판정	2012.7.15	중국	철강제 위생용품	724.21
반덤핑 판정	2012.10.2	중국	활성탄	3802.10

\*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정부지출 확대와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가 경제성장의 핵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로 인해 공산품·소비재 수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 외국자본 유입이 쉽지 않은 폐쇄적인 금융시장 등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이 오히려 효자 노릇을 한 셈임
- 그러나, 세계경기가 안정화되고 다시 호황기를 맞게 되면, 러시아는 특유의 산업구조와 폐쇄적인 시장 환경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경제가 획기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과 같은 외형적 변화만 이룰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등 체질개선이 필요함

## 나. CIS권 경제 블록화

### □ CIS지역블록화 추진 상황

- (진행사항) 러시아-벨라루시-카자흐스탄 정부는 삼국관세동맹에 이어 단일경제공동체 (CES; Common Economic Space)을 2012.1.1일부로 출범시킴<sup>18)</sup>

#### ◇ 삼국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동체의 차이

##### \* 삼국관세동맹

- 대외수입품에 대한 동일 관세율부과, 역내국가간 자유로운 상품이동

##### \* 단일경제공동체

- 관세동맹 외에 단일기술규제(인증통일), 거시경제정책 조율, 자유로운 자본 이전 등

- 러시아 정부는 단일경제공동체(CES)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상호 교역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 통화, 합의된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 수행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2015년까지 추진 중
-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구축 이후, 유럽 연합에 필적하는 유라시아연합(EAU; EuraAsian Union)을 창설하겠다는 복안이 있음

#### < CIS국가의 경제블록화 >



- 전문가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조성을 위한 양국 간 협의와 입법 수립이 2012.1월 이후 새로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
- 외국 주요 전문가들은 삼국 관세동맹 국가들의 교역량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삼국간의 교역확대 창출을 위한 기반이 부재함을 지적함

18) 단일경제공동체를 준비하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2012.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2012.7.1일부로 관세동맹 위원회(Commission of the Customs Union)가 소멸

- 그 이유를 EU와 달리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은 자원의존 경제 비중이 높고 내부 산업 인프라(발달된 제조업)이 없어, 수출 확대 및 역내 회원국간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 벨라루스의 경우 자동차, 차량부품, 식료품 등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아 역시 역내 회원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 삼국 관세동맹에 따른 역내 교역량 변화는 아래와 같음
  - 2011년에는 33.9% 증가했으나 2012년은 경우 8.7% 증가세를 보여 주춤
  - 특히 카자흐스탄의 대 러·벨라루스로의 수출이 3.7% 감소

**< 삼국관세동맹 총 교역액 및 각국의 역내 수출액 >**

기간	관세동맹내 총 교역액		벨라루스 수출액		카자흐스탄 수출액		러시아 수출액	
	백만불	증감률(%)	백만불	증감률(%)	백만불	증감률(%)	백만불	증감률(%)
2010	47134.6	29.1	10418.4	48.2	5999.2	66.6	30,717.0	18.7
2011	63100.9	33.9	15182.9	45.7	7103.4	18.4	40,814.7	32.9
2012	68582.2	8.7	17090	12.6	6837.8	-3.7	44,654.4	9.4
2013.1월	4705.3	-2.2	1182.4	9.1	504.1	1	3,018.8	-6.5

\* 자료원: Tsouz

**□ CIS지역블록화에 대한 주요 CIS 국가의 입장**

-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공존
  - 긍정적인 평가는 카자흐스탄의 물류 시장 발전 및 제조업분야 발전 가능성 고려
  - 부정적인 평가로는 경제연합에 대한 역효과와 관리제도의 낙후성 우려
- (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지대(FTZ)에는 긍정적이거나 경제블록화에는 소극적
  - FTZ 협정 체결에 긍정적<sup>19)</sup>이지만, FTZ 보다 긴밀한 통상·인적 교류가 가능한 지역통합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일반적 의견임

19)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4월 14일부터 2일간의 공식 방러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의 FTZ 가입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

◇ CIS 자유무역지대(FTZ) 체결

- \* 2011.10.18일 독립국가연합(CIS)국가 중 8개국이 자유무역지대(FTZ) 협정에 서명
  -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로루스
  - 에너지부국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비 참여
- \* 경제적 이점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삼국관세동맹 참여 희망
  - 2012.12월 타지키스탄은 관세동맹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언급하는 등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주도 CIS지역 블록화에 찬성하는 입장임
  - 아르메니아도 유라시아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sup>20)</sup>
-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중심 CIS 재통합에 관심 없음
  - 현재 기 구축된 삼국관세 동맹 참여 역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님<sup>21)</sup>
  - 반면, 인적, 종교, 언어가 같은 터키와의 무역협정 협상에는 적극적임
- (우크라이나) EU가입 추진과 러시아 압력 사이에서 저울질 중<sup>22)</sup>
  - CIS FTZ에는 가입했으나 3국 관세동맹 가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국가 전략으로 정하고 있어 관세동맹에는 3+1 형태(참관국 지위로 참여해 부분적 동참)로 참여하길 희망

□ CIS지역블록화에 대한 전망

- 일부 극빈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추가 참여 가능

20) 2012.7월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의 아르메니아 방문중 아르메니아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아르메니아가 관세동맹 및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참여의사가 있음을 확인

21)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 Aydin Aliyev 위원장이 2012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관세 동맹(Eurasian Customs Union)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2) 2012년 대러 수출 비중 : 25.67%(176억 US\$달러), 대EU 비중 : 24%(174억 US\$달러)

-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러 경제의존도가 낮아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현지 의견임
- CIS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경제, 인구 면에서 큰 규모를 지닌 우크라이나가 합류할 경우, CIS 경제통합은 규모 및 추진 동력 면에서 탄력을 받을 것

#### 다. BRICS 국가와의 협력

##### □ 미·유럽 견제위해 BRICS국가와의 협력 강화

- (경제적인 측면) 러시아는 BRICS로부터 투자 유치에 관심이 높음
  - 관련국가의 교역 및 투자와 상호 비즈니스 프로젝트 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는 'BRICS 비즈니스 위원회' 창설을 주장
- (지정학적 측면) 관련국가의 협력 강화 및 BRICS 협의체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 중
  - 미국, 유럽에 대해 자주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푸틴은 BRICS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방 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척하고자 함

##### □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 BRICS 국가와의 관계 중 러시아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역시 미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정치 대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sup>23)</sup>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방문(2013.3.2)
  - 러시아 첨단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
  - 양국 공동으로 디젤-전기 추진 초소음 잠수함 개발에 합의
  - 천연가스 380억 큐빅미터를 2018년부터 중국에 공급 합의
  - 석유회사 Rosneft는 중국으로부터 20억 달러를 차입하는 대신 석유공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

23) 러시아는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에도 가입

- 그 외, 러시아는 중국이 극동 러시아 지역개발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핵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sup>24)</sup>
-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이자 4위의 대 수출국으로 현지전문가는 2013-2015년 양국의 교역량이 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12년 BRICS국가의 대러 교역 순위 >

국가	수출국 순위(러시아로 수출)	수입국 순위(러시아의 수입)
중국	4	1
인도	17	22
브라질	31	19
남아공	84	47

\* 자료원: WTA

□ 다른 BRICS 국가와의 협력

- (인도) 인도에 자원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 전력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현지 전문가는 대 인도 교역이 2013-2015년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자국의 델리-두바이 산업 통로(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 DMIC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투자하기를 희망
- (브라질) 양국 간 포괄적 협력 추진
  - 2012.12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12월 모스크바 방문, 러시아제 헬리콥터 7대 구매계약 체결
  - 2013.2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브라질을 방문, 러시아제 대공방어시스템 구매에 합의
- (남아공) 3.26-27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 중 러시아 기업 Revova 및 2개 기업이 광물개발과 통신사업 관련 계약에 합의

24) 2012.12월 양국은 중국의 Tianwan에 러시아가 핵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협의

## 라. FTA 협상 진행 상황

### □ 러시아, WTO가입 이후 FTA 추진 활발<sup>25)</sup>

- (CIS회원국, 세르비아) 2013년 기준, 러시아와 FTA 체결 완료
- (뉴질랜드) 통관, 지적재산권, 위생검역, 기술규제 등에 대해 재협의를 중 2013년내 완료 될 것으로 예상
- (유럽자유무역연합)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질랜드에 이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라 언급
- (베트남) 2012.11월 러-베 국무총리간 합의에 의거, 삼국관세동맹-베트남간FTA 체결 1차 미팅을 가짐(2013.3.27)<sup>26)</sup>
- (칠레): 2011.4월 삼국관세동맹과의 FTA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제안<sup>27)</sup>
- (페루): 2013.3월 삼국관세동맹과의 FTA 체결 제안<sup>28)</sup>

### □ 한국과의 FTA 체결 진행사항

- 현지 정보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소극적이라 함
- 한-러 간의 교역구조(한국: 상품 수출, 러시아: 원자재 수출)로 인해 러시아 측이 얻을 만한 이득이 없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함<sup>29)</sup>

25) 38개국과 FTA 협상 진행 중

26) 상품 교역 분야 외에 서비스,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협의 중

27) 2012년 러-칠 교역액은 513만달러(출처:World Trade Atlas)

28) 2012년 러-페 교역액은 382만달러(출처:World Trade Atlas)

29) 2008년에 러-한 FTA 체결 논의 중단되었음

### Ⅲ. 한-러 관계 현황 및 전망

#### 1. 한-러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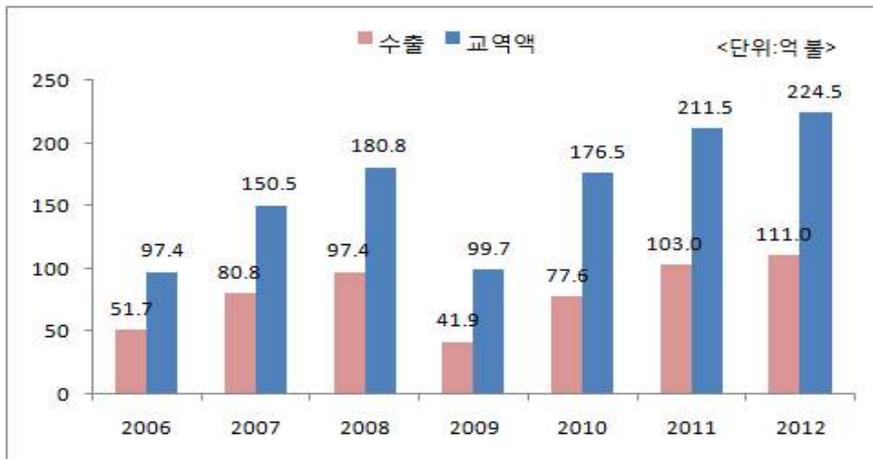
##### 가. 대(對)러 교역 현황

######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양국 교역량 지속 확대

- 한-러 양국 간의 교역액은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교역 및 수출은 급감
- 그러나, 다음해인 2010년부터 교역량이 확대되어 2011년 최초로 교역액 200억 달러 돌파, 수출 100억 달러를 시현함

< 2002-2012년 대러시아 수출·교역액 추이 >

(단위 : 억 불)



\* 자료원: KOTIS

###### □ 2012년 교역액 224.5억불, 수출 111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수출 111.0억불(전년대비 7.7%증가), 수입 113.5억불(4.6%증가), 총 교역액 224.5억불(6.1%증가)의 실적 거양

- 한국의 대외 수출입 상대국 중 대러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금액비중은 교역2.1%, 수출 2.0%로 시장개척 여지가 많음
  - 수출: 11위('11년) → 10위('12년)
  - 수입: 13위('11년) → 12위('12년)
- 2013년 3월 기준 대러 수출은 27.8억불(전년동기대비 11.3% 증가), 수입 27.3억불기록(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해 비교적 순조로운 상태임
  - 수출 증가 사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의 지속적인 수출증가 및 지난해 부진했던 합성수지, 선박의 수출회복에 기인<sup>30)</sup>

< 대러 교역 추이 >

(단위 : 억불,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1~3월
총 역	99.8(△44.8)	176.6(77.0)	211.6(19.9)	224.5(6.1)	55.1
대러수출	41.9(△57.0)	77.6(85.0)	103.1(32.8)	110.9(7.7)	27.8(11.3)
대러수입	57.9(△30.6)	99.0(71.0)	108.5(9.6)	113.5(4.6)	27.3(0.5)
무역수지	-15.9	-21.4	-5.5	-2.6	0.49

\* 자료원 : KITA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보완적 경제구조 (주력상품 수출시장, 원자재 수입처)

- 러시아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의 주요 수출처임
  - 대러 수출위상('12년 기준): 상용차(1위수출국가), 승용차, 차량부품(2위), 건설중장비, 타이어(3위),TV(5위), 휴대폰, 합성수지(9위)
- 반면, 수입에서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료 및 나프타 등 산업자재가 대부분임
  - 대러 수입현황('12년 수입액기준): 원유(39억불,전체수입 비중 34%), 나프타(18억불,16%), 유연탄(14억불,14%), 천연가스(8.5억불,7%) 등

30) 승용차(799백만불, 6.8%증가), 자동차부품(444백만불, 7.9%증가), 건설중장비(175백만불, 43.7%),합성수지(147백만불, 11.2%증가), 선박(40백만불, 5618%)

## □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 편중 현상

- 승용차 및 관련 제품(자동차부품, 화물차, 타이어)의 대러 수출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대러 수출에서 비중이 매우 높음
  - '11년 44.9%(4,634백만 불) → '12년 49.7%(5,516백만 불)
- 이러한 편중 현상 탈피를 위해 주종 수출품 다변화 노력이 필요

### < 대러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

(단위: 백만불/%)

순위	품 목	2012(1-12월)			2013 (1-3월)		
		금액	증감률	수출비중	금액	증감률	수출비중
	총계	11,097	7.7	100%	2,781	11.3	100%
1	승용차	3,119	17.0	28.1%	800	6.8	28.8%
2	자동차부품	1,645	21.4	14.8%	444	7.9	16.0%
3	건설중장비	477	3.5	4.3%	176	43.7	6.3%
4	합성수지	578	-1.0	5.2%	147	11.2	5.3%
5	화물자동차	568	14.3	5.1%	91	-24.5	3.3%
6	칼라TV	249	1.6	2.2%	58	25.4	2.1%
7	타이어	183	58.1	1.6%	57	29.0	2.1%
8	기타플라스틱제품	166	21.1	1.5%	44	5.9	1.6%
9	아연도강판	189	75.4	1.7%	41	0.4	1.5%
10	선박	43	-92.9	0.4%	40	5,618	1.4%

\*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주 : MTI 4단위 기준

## 나. 한국의 대(對)러 투자현황

- 대러 투자 누계액은 19억 9천불로 우리나라 총 해외 투자의 1% 수준
- '89년 3건, 48만 불로 시작하여 '07~'10년 대규모 투자(13.6억불) 이후, '11년 0.9억불, '12년 1억불로 다소 주춤한 상태임

< 연도별 대러 투자 추이 >

(단위 : 건, 천불 US\$)

연도	신규법인수	송금횟수	투자금액
<b>계</b>	<b>450</b>	<b>1,659</b>	<b>1,989,847</b>
1989	3	3	481
1990	2	2	19,298
1991~2000	121	251	171,747
2001~2005	86	300	123,437
2006	21	83	114,590
2007	52	139	238,069
2008	62	207	359,339
2009	32	278	427,983
2010	22	186	334,322
2011	33	109	97,872
2012	16	76	102,708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13.3월 기준)

○ 투자분야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제조업 분야에 11.6억불(143건)로 전체 대러 투자의 60%를 차지
- 그 뒤를 도매·소매업(2.4억불, 12.5%), 광업(1.5억불, 7.6%) 등

< 업종별 대러 투자 비중 >

(단위 : 건, 천불 US\$)

업종	비중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제조업	60.0%	144	1,193,335
도매 및 소매업	12.5%	88	248,736
광업	7.6%	8	150,617
농업, 임업 및 어업	6.8%	58	136,0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8%	25	76,216
기타	9.3%	127	184,924
<b>계</b>	<b>100%</b>	<b>450</b>	<b>1,989,847</b>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13.3월 기준)

## 다. 러시아의 대(對)한 투자현황

- 러시아의 대한 투자 누계액은 4,800만불로 초보단계(도착액기준)

### < 연도별 러시아의 대한 투자 추이 >

(단위 : 건, 천불 US\$)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도착건수	도착금액
1990	1	200	-	-
1991	5	711	3	402
1992-2000	109	10,233	82	5,848
2001-2005	137	7,309	101	5,888
2006	33	2,314	25	2,113
2007	38	2,526	26	1,932
2008	64	16,001	47	13,000
2009	32	1,466	25	1,276
2010	52	5,054	30	4,328
2011	49	8,764	38	6,596
2012	55	95,159	46	6,481
<b>누적총계</b>	<b>575</b>	<b>149,737</b>	<b>423</b>	<b>47,862</b>

\* 자료원 : KOTRA Invest Korea (2013.3월 기준)

- 도·소매(유통)업이 전체 대(對)한 투자의 55.2% 차지
- 도·소매(유통)업(26백만 불, 55.2%), 운송용 기계(8.3백만 불, 17.2%), 운수·창고(물류)업(4.6백만 불, 9.6%) 순

### < 업종별 대한 투자 비중 >

(단위 : 건, 천불 US\$)

업종	비중	송금 업체수	투자금액
도·소매(유통)	55.2%	326	26,430
운송용 기계	17.2%	5	8,255
운수·창고(물류)	9.6%	36	4,583
비즈니스 서비스업	8.1%	9	3,875
기타(숙박 등 13개분야)	9.9%	47	4,719
<b>총 계</b>	<b>100%</b>	<b>423</b>	<b>47,862</b>

\* 자료원 : KOTRA Invest Korea (2013.3월 기준)

## 2. 한-러 핵심 이슈

### ◆ 한-러 관계 개황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가스관, 송전망, 철도연결)과 우리나라가 대러 통상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경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 러시아 추진: 美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새로운 판로 \_ 동북아 주목

- 미래 에너지혁명으로 불리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 판로가 위협되면서 에너지 수출 안정성을 위해 아시아에 주목
  -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 톤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하며, 이는 국내 도입물량의 10%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의 가스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로 답보상태인 철도연결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함.
  -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 건설은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APEC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극동러시아 경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 및 플랜트 관련 설비·기자재 제조기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짐

#### 가. 남·북·러 가스관 건설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 750만 톤 규모의 러시아 PNG를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임
  -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1) 러 천연가스 수급선 다변화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 2)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3)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협력체계 구축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음

**< 한-러 천연가스 협력 추진경과 >**

시기	합의	내용
2003년 5월	한국가스공사-가스프롬 협력협정	▶가스산업 분야 협력 합의
2006년 10월	한-러 정부간 가스산업 협력협정	▶한국으로의 가스공급 이행 조건 구축 ▶수송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합의
2008년 9월	한국가스공사-가스프롬 러시아가스 도입/공급 MOU	▶2015~2017년부터 개시, 연간 약 750만 톤 이상 공급 논의
2009년 6월	한국가스공사-가스프롬 공동연구협약	▶최적 수송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 합의 : PNG, LNG, CNG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연구
2010년 8월	제8차 양사 부사장급 회의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양사의견 최종 확인 ▶최적 도입방안 도출을 위한 로드맵 공동수립
2011년 9월	PNG 도입을 위한 로드맵 체결	▶북한을 경유하는 PNG 방식으로 러시아가스 도입일정 합의

\* 자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남북 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연구', 2012년

-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관련,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한국 관련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 건설 사업이 거의 유일함
- 러 사하공화국(야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2017년 말까지 건설 완료될 것으로 예상
  -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톡까지 장장 3,200 km를 이어져 공급됨
  - 이곳에서 생산된 가스는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에서 액화되어 아시아로 수출
- 2017년 말까지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액화시설)도 완공될 것으로 보임
  - 동 건은 일본 컨소시엄 기업과 가스프롬이 합작으로 발주기로 합의

**나. 철도 연결 사업**

- 1999~2001년 동안 한·북·러 양자간 정상 회담 후 남북한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 꾸준히 검토되었으나 북한의 대외정책 강경 노선으로 현재는 담보 상태임

- 2011년 故김정일 인민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시, 메드베데프 前대 대통령은 TKS과 TSR 연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를 희망
- TKR-TSR 연결 사업은 유럽과 동북아 지역 간 물류의 중심 루트를 만들고 개발이 소외된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물려, 극동개발부가 대규모 우선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는 등 매우 적극적임

< TKR-TSR 연결사업 일지 >

연도	내용
2001	(8월) 한-러 정상회담(2월) 및 러-북 정상회담 - TKR/TSR 연결사업에 대한 정상간 추진 의사 확인 : 한 · 러/러 · 북간 실무협의 및 예비 타당성 등 시행
2002	(11월) 러 · 북 정상회담(8월) 및 러 · 북 철도장관회담 - 러 · 북 양측은 철도연결 노선, 자원조달방법, 한 · 북 · 러 3자 철도장관회담 개최 등 협의
2002-03	러시아 극동철도국 북한 철도구간에 대한 조사 실시
2003	(10월) APEC회의, 한 · 러 정상회담 - 한 · 북 · 러 3자 연구 기관간 협의 추진 합의
2004	(4월) 제1차 한 · 북 · 러 전문가회의 개최 - 실태조사, 노선문제, 컨테이너 시범사업 등 협의
2006	(3월) 한 · 북 · 러 철도 운영자 회의 개최 - 북한 철도 일부 구간(나진-함산) 재건 합의 (7월) 러 철도공사 사장 방북 - 북측과 TSR/TKR 연결 문제 협의 : 러시아는 나진-함산간구 간 현대화 추진 사업을 북측과 협의
2007	(6월) 한 · 러 양국 철도공사 나진-함산 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 2007년 부산-나진-함산. TSR 컨테이너 시범 사업 추진 - 한국철도공사 및 글로벌비스, 범한판토스, 장금상선, 우진글로벌이 40%의 지분을, 러시아철도공사가 60%의 지분을 가지게 됨
2008	(4월) 북한, 러시아철도공사와 철도 합영회사 창설에 최종 합의
2011	(10월) 함산-나진간 철로 보수 공사(52km) 구간 완공 및 시범운영 실시 - TKR-TSR 연결사업의 전조 사업

\* 자료: 러시아중소기업진출가이드,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 다. 전력망 연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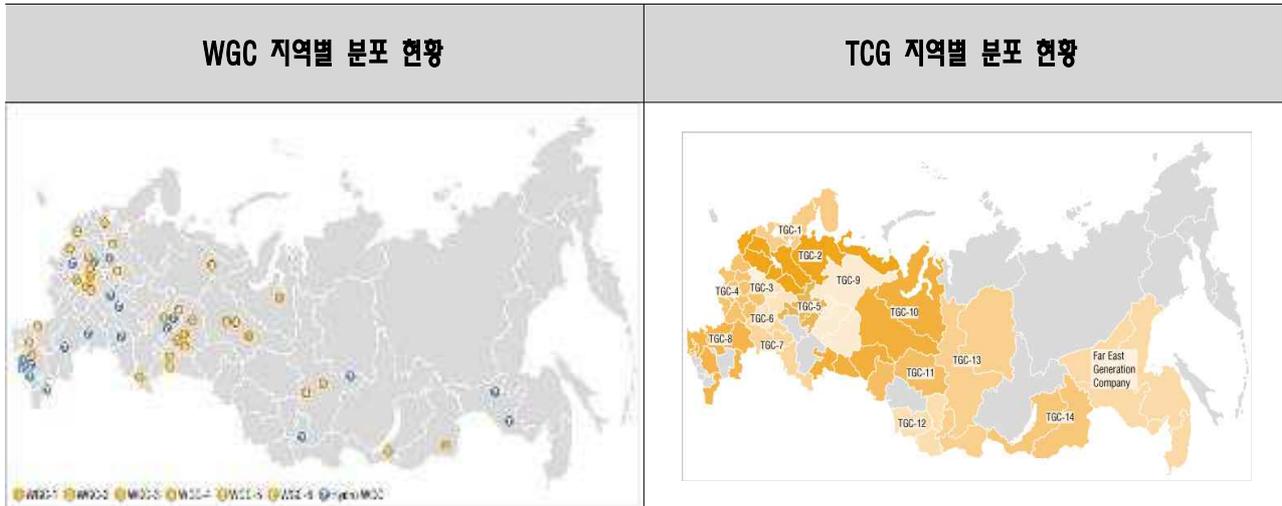
- 러시아는 북한과 한국으로 수출할 전력을 극동지역 생산 또는 예정인 발전소 등에서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움
  - 극동 지역의 기존 발전소와 중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위해 건설 중인 발전소
- 러시아 동부전력회사는 2010년 남북한 전력 수출용 송전선 건설 타당성 조사
  - 동 조사를 통해 극동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500kV 송전선 건설 방안을 검토
- 우리정부는 북한 변수를 우려 비교적 조심스레 접근 중이나, 러시아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 러 연방 전력청 민영화와 시장개편

- 2008년 7월, 러 전력산업(발전, 송배전, 전력수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러 연방 전력청(RAO UES)가 해체되면서, 러시아 전력산업 조직개편

### < 러 전력산업 조직개편 결과 >

기업명	사업영역	소유구조
▶WGC (Wholesale Generating Companies) ▶TGC (Territorial Generating Companies) ▶HydroOGK (RusHydro 소유) ▶원자력발전소 ▶기타 개별 발전소	발전	민영화된 기업
▶FGC UES (Federal Grid Company of Unified Energy System,	송전	정부 독점소유
▶Inter-regional distribution grid companies (노문표기 : MRSKs) ▶distribution grid companies	배전	정부 독점소유
▶Inter RAO UES ▶기타 개별 기업	전력판매/ 수출	민영화된 기업



\* 자료원 : Standard & Poors

### □ 러 전력산업 주요기업 및 산업구조

- FSK는 송전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며, MRSKs/RSKs는 배전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임
- 전력설비 및 기자재 납품의 주요 대상기업은 FSK, MRSKs, RSKs임
  - 우리나라 전력설비 및 기자재 제조기업은 러 시장에서 발전소보다는 송배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 주요 공략품목은 초고압지중케이블, 스마트그리드 등임
  - 최근 RusHydro에서 아무르강 지역을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 향후 극동 러시아 지역 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고압차단기 생산 공장을 극동러시아 연해주 아르츰시에 건설하였음<sup>31)</sup>

31) 2013년 1월 공장을 열었으며, 현재 러시아에 고압차단기 공급 생산 준비 중에 있음

**< 러시아내 스마트그리드 이용현황 >**

지역(기업)	운영 내용	시행연도
The Republic of Khakassia (Aluminievaya 변전소)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콘덴서 뱅크(capacitor bank) 운영	2009년
The Leningrad Region (Vyborgskaya 변전소)	▶합선의 위험을 줄이고 전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력 제어 장치 운영	2010년
Belgorod	▶스마트 시티(Smart City) 프로젝트 실행 - 가시 조건, 사람 수에 따라 조명 수를 조절하며, 전력, 네트워크 상태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Smart Lighting) 적용 - 와이어 파손 감지 - 특정 기간 동안의 전압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운영	2010년

**□ 한국산 전력설비 러시아 진출 가능성**

- 2008년 10월, 대한전선은 러 연방 전력청(RAO UES)에 전력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Energo社와 초고압전력망 구축 관련 초고압지중케이블, 각종 부속 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제품공급은 2009년부터 시작하며, 3년간 1억8천만 달러 규모
- 최근 우리기업들은 스마트그리드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중심으로 러시아 전력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음
  - 현재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의 고압차단기 생산 공장 투자진출도 러시아 정부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었음

## (2) 한국 추진: 대러 통상 확대를 위한 경험

- (의료분야) 전문 인력은 있으나 의약품 부족과 의료 장비 및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러시아 의료 분야의 현대화 프로젝트 진출
- (조선분야) 양국 조선 회사 간의 합작법인 설립
- (전력망분야)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출

### 가. 의료 분야 협력

#### □ 러시아 의료시장 개황

- 舊소련 시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었으며, 현재까지 법률상(러시아 헌법 41조)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무상지원이 보장되어 있음
-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부문 복지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러시아내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러시아는 舊소련 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뛰어난 의료기술, 의료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약품 부족 및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의료장비 낙후와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고소득층은 공공병원 보다 개인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규모와 시장특성

- 러시아에도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나, 재정상태 부실로 인해 양질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10% 가량이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이용고객 중 90%는 직장단체보험 가입자임

- 단순 통계로만 추산하면, 러시아에서 개인비용 지출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러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서고 있음
- 심지어 의료검진 및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구매까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규모 >**

(단위 : 억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시장금액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지출 <sup>32)</sup>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 자료원 : Frost & Sullivan / 2011년은 추정치

-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민영의료서비스 영역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덩달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개인지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계 병원 진출현황**

- 외국인이 병원운영에 참여하는 민영의료기관중 대표적인 기관인 American Medical Center, American Medical Clinic은 병원장 등 핵심인사로 외국계 의료 인력이 포진되어 보다 선진화된 병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음

32) 보험혜택 없이 개인이 지급하는 의료비 (Direct out-of pocket payment)

< American Medical Center 병원정보 >

법 인 명	•ADAMANT holding company (www.adamant.ru)
병 원 명	•American Medical Clinic
웹사이트	•www.amclinic.com
설립년도	•1993년
운영현황	•1개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3년 駐상트-페테르부르크 미국 총영사관 지원 하에 병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90년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기업 주재원 등)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li> </ul> </li> <li>•2002년, AMC는 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Holding Company인 'ADAMANT' 에 인수</li> <li>•주요 진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 - Family Doctor 운영</li> <li>- 거의 모든 진료과목 운영</li> </ul> </li> </ul>

< American Medical Clinic 병원정보 >

법 인 명	•MEDSI Group (www.medsir.ru)
병 원 명	•American Medical Center
웹사이트	•www.amcenter.ru
설립년도	•1991년
운영현황	•1개 (모스크바 소재)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DSI Group에서 운영중인 병원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SI Group은 러 전역 18개 도시에 31개 병원 운영중</li> <li>- 1,00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 보유</li> <li>- 50,000㎡ 이상의 병원 시설면적 확보</li> <li>- MEDSI Group은 러 전체 민영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1.32% 비중 차지</li> </ul> </li> <li>•주요 진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 - Family Doctor 운영</li> <li>- 거의 모든 진료과목 운영 - 해외병원 연계 환자송출</li> </ul> </li> </ul>

## □ 해외병원 러시아 진출시 진입장벽

-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함
- 외국인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병원이 러시아에 투자 진출하여 외국계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의료진만은 러시아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러 의료시장 진출 관련 국내 대형병원 진출전략

- (진출분야) 대형병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수출 및 U-Hospital 구축 관련 S/W 시스템 수출
- (타겟대상) 병원 현대화 수요가 있는 러 대형병원
- (진출방식)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발굴,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참여

## 나. 조선 분야 협력

- 우리나라와 러시아 조선 회사 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러 발주 선박을 수주 중
- 국내 기업 진출 현황
  - (대우조선) 합작법인 즈베즈다-DSME<sup>33)</sup>를 통한 건조협력 추진해 러시아 국영해운사 Sovcomflot사의 발주선박 수주
  - (STX) 러시아 국영조선소와 협력해 Admiralty조선소(상테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화사업 협력중

## 다.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 참여

- 한-러 에너지장관 회담(2009.8월)을 통해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 후, 현재에는 관심이 있는 한국 업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33) FESRC(USC 산하 러 극동조선센터)-대우조선해양(DSME)이 '10.6월 설립한 합작법인(Joint Venture)

### 【 국내 기업 진출 현황】

- 현대중공업 - 연해주에 약 400억 규모의 중전기기 제조공장 설립<sup>34)</sup>
- 대한전선 - 2008년 러시아 전력청에 전력망 공급 계약 수주
- LG상사 - LED 사업 및 자동차 산업 협력 추진
- 현대종합상사 - 러시아 고속철도 수주 추진

## 3. 한-러 경제·통상 전망

### □ (교역) 한-러 교역 관계 확대 전망

- 유럽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견실한 성장을 유지했던 러시아는 하반기부터 교역량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 3.4%로 둔화 (2010,11년 각 4.3% 성장)
- 세계 주요 기관들은 유로존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인한 교역감소,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소매여신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수요 위축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
- 이런 러시아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선전은 고무적이며 WTO가입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 역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2013년도 대 러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편, 한국기업의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돌파구로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34) 연해주 아르템(artem)시에 2012.12월 완공

## IV. 주요 시사점

---

### 1.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 대러 수출품 확대 통한 지속 수출성장 기반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2011년에 이어 2012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확대 중에 있으나 자동차 관련 제품이 대러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특정상품에 편향되어 있어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최근 엔저 약세로 인해 일본산 차량 및 부품의 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큰 부담임
- 이에 WTO 가입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IT, 화학제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러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
- 그외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맞는 틈새 수출품목을 개발해 대러 수출품 다변화와 이를 통한 지속 수출기반 확대 필요

#### □ 극동지역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 러시아는 자국 가스 판로 확대를 위한 동북아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지역균등 개발 및 안보상의 이유로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에 적극적
- 러시아는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 인프라, 낙후지역 SOC 건설 프로젝트 및 의료, IT융합 관련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폭 중

- 우리기업의 비교 우위를 갖는 건설,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특히 러시아정부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에 러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모색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참여 노력이 필요

#### □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진출 확대 필요

- 러시아 정부의 권의적인 하향식(Top-down) 투자환경 개선 노력방식과 고질적인 대러 투자의 어려움인 고비용, 관료주의, 부패 등의 개선은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WTO가입에 따라 러시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투자진출 계획 하에 우리기업의 대러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가전, 자동차, 식품, 담배 등의 투자진출분야의 확대 외에 호텔업, 의료, 유통, 에너지, 자원 등으로 다변화될 노력이 필요

#### □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대러 통상 인프라 확충

- 러시아의 WTO가입 이후 세제, 규제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 예정이나 삼국관세동맹이 정한 관련 규정과의 조정으로 인해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빈번히 만들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법규 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대업체 공유를 통해 최대한 WTO 이후 변경될 각종 규정, 법률 활용이 필요
- 한편, 대러 통상 전문가는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기업, 학계는 물론이요 정부 기관에서도 대러 전문 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

□ 한-러 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확보

- 러시아의 WTO가입은 상품수출 시장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인근 EU국가 등의 진출 확대로 시장 잠식 가능 및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노력도 확대중임
- 한-러 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낮춰 경쟁국과의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한-러간 FTA 체결 고려 필요
- 양국은 '07-08년에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구성이후 협상 중단 상태 중

##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3년 전망	2013.4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3	한중 FTA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2013.5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각국별 해외전시회 참가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시장조사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 작성자

◆ 모스크바 무역관	오명훈
◆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주한일
◆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이금하
◆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김성수
◆ 키예프 무역관	최진형
◆ 알마티 무역관	김정훈
◆ 바쿠 무역관	홍 희
◆ 타슈켄트 무역관	이종섭
◆ 신흥시장팀	최민희

## Global Market Report 13-039

###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5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